

흠의 의료윤리와 정직의 덕

김다솜*

주제분류 윤리학, 응용윤리학

주요어 덕윤리, 공감의 원리, 정직, 성품, 자율성의 원칙, 선행의 원칙, 돌봄

요약문

나는 이 글에서 흠의 윤리이론을 의료윤리적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의 윤리이론을 덕윤리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흠의 덕윤리적 관점은 특수한 의료적 상황에서 의사나 간호사, 혹은 가족은 물론 심지어는 환자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훌륭한 행위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덕윤리적 관점에서 해석된 흠의 정직의 덕은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 혹은 원칙의 일방적인 적용을 배제한다. 흠에게 어떤 행위의 도덕성은 의무나 원칙의 무조건적 이행이 아니라 행위 수혜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행위이며, 이는 공감과 유덕한 행위자의 시인의 감정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행위자가 갖는 성품적 특질들 중의 하나가 정직의 덕이다. 따라서 흠의 윤리이론에서 하나의 덕으로서의 정직은 모든 경우에 준수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고정 불변하는 행위 원칙이 아니라 정직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여건에서 형성되는 성품특질 또는 인격특질이다. 정직이 갖는 이러한 성격 때문에 흠의 관점에서 질병의 치료와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제일의 덕목은 자율성의 원칙이 아니라 선행의 원칙이다.

* 중앙대학교

1. 흄과 공감의 원리

이 글은 흄의 윤리이론을 덕윤리적 관점에서 의료윤리적 문제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흄의 윤리이론의 중요한 특징들을 덕윤리적 관점에서 구체화하려고 시도한다. 다양한 규범적 윤리이론들이 의료윤리적 문제들의 해결에 적용되어 왔지만, 나는 덕윤리로 해석된 흄의 윤리이론이 다른 이론들이나 접근법 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의무와 원칙을 강조하는 칸트적 의무론이나 행위의 목적과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 등 근대의 규칙 중심의 윤리에 반기를 들었던 현대의 덕윤리학이 등장한 지도 반세기가 넘었다. 그동안 덕윤리학은 많은 주목과 관심의 중심에 있어 왔다. 하나의 윤리이론 내지는 윤리적 관점으로서 윤리적 문제들의 해결에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덕윤리학 진영 내부에서 벌어지는 서로 대립하는 의견들 간의 다툼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학윤리 혹은 의료윤리 분야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 환자의 간호 혹은 돌봄 등 좋은 간호를 위한 품성이나 자질에 대한 덕윤리적 연구들도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도덕적 의사결정과 판단의 덕윤리적 근거에 대한 의견 일치는 더 더욱 난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덕윤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동일한 문제 상황에서 누구나 동일한 결정과 실천을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 규칙을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는 동시에 의료적 치료가 요구되는 현장에서 실천적 정당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흄의 덕이론은 이러한 문제들을 비켜갈 수 있는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흄 자신은 직접적으로 의료윤리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 하지만 현

대 의료윤리 연구에서도 흠의 철학은 그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공감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흠의 공감의 원리는 흠 당대의 의료윤리 분야에서도 이미 주목을 받았던 개념이다. 특히 이 흠의 공감 원리를 의료윤리와 접목시킨 최초의 시도는 흠과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이자 의료윤리학자였던 존 그레고리(John Gregory, 1724-1773)를 통해서다. 머컬러에 의하면, 그레고리는 영어권에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의료’ 혹은 ‘의학’(medicine)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장본이기도 하다. 그는 영어권에서 대중적이며 철학적인 여성의료윤리와 생명윤리에 관한 글을 쓴 최초의 인물인데, 그의 의료윤리의 핵심은 흠의 공감의 원리였다.¹⁾

흠에 의하면 공감 혹은 공감감정은 모든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보편적 감정이다. 의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공감의 작용은 환자의 치료와 돌봄을 위한 윤리적 토대 역할을 한다. 의사와 간호사의 환자 돌봄은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환자의 치료는 단순히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 때문에 공감도덕은 의사나 간호사와 환자를 윤리적 관계로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타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토대가 된다. 의료행위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윤리적 행위들도 이러한 공감도덕의 바탕 위에서만 유의미할 수 있다.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행위와 충돌할 수 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결정할 때에도 그 바탕에는 공감감정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성립하는 윤리적 관계나 선택적 치료의 문제는 고장 난 기계를 수리할 때 생기는 고민과 같은 행위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 사이의 충돌이나 대립이 발생

1) Laurence B. McCullough, “Hume's influence on John Gregory and the history of medical ethics”,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24(4):376-95.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의 원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행위의 선택을 수월하게 하는 이론적 적합성을 흄의 정직의 덕을 살펴봄으로써 제시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덕윤리적으로 해석된 흄의 윤리이론은 공감의 원리와 함께 의철학 및 의료윤리적 문제 해결에 매우 유용한 행위 원칙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2. 흄의 윤리이론과 의료윤리

1) 자율성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

의사와 환자, 간호사와 환자,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의학적 결정과 환자의 가족과의 관계 등 다양한 상황과 처지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문제들은 많다. 또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어 왔다.²⁾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혹은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회의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등 매우 일반적인 문제에서부터 심지어는 특정 수술과 치료는 누가 해야 하는가? 하는 아주 세부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비침과 칠드리스에 의하면, 의료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으로서 자율성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³⁾ 이 원칙들은 의사와 환자, 간호사와 환자, 심지어는 환자와 그 가족의 관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윤리적 원칙

2) 참조: John Arras and Robert Hunt (eds.), *Ethical Issues in Modern Medicine*, California: Mayfield, 1983; Bette-Jane Crigger (ed.), *Cases in Bioethics*, Selections from the Hastings Center Report, 3rd. ed., Boston/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3) Tom L. Beauchamp and James F. 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들이다. 이들 윤리 원칙은 어떤 의료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일정한 그리고 일반적인 처신이 가능한 행위지침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들 원칙에 따라서 행위를 결정하고 수행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가령,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의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자 : “어떤 남자가 60대 후반의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와서 암 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결과 대장암이라는 판명이 나왔다. 그런데 의사는 이제까지의 경험과 환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보건데 암이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환자의 병세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⁴⁾ 이러한 사례에서 의사는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고 환자 본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의사는 타인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행의 원칙”에 따라서 환자에게 결정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있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간호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환자와 가족, 의사 및 다른 보건의료 제공자들의 관계들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는 더 어렵고 민감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은 관계를 고려할 때 간호사는 만일 환자가 어떤 식으로든 수술 치료를 결정하게 되어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의 환자가 자신의 병인과 병세,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 물어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의 문제는 의사의 경우보다 더 심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해야 하는가?

간호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사는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4) 김일순·손명세·김상득, 『의료윤리의 네 원칙』, 96쪽.

아니면 진실을 듣게 된 환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나은가? 위 사례에서 암 환자의 경우처럼 환자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한편으로는 자율성의 원칙에 기대어 의사는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고 선택은 환자의 결정에 맡길 수 있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충분한 정보가 환자의 의사결정에 최대한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료적 치료의 목적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이며, 이에 따라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선행의 원칙에 따라 행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흄의 윤리이론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2) 자연적 덕과 인위적 덕

흄은 근대의 의무와 규칙 중심의 윤리를 넘어서는 덕과 성품 중심의 윤리를 제시한다. 덕윤리학이 지닌 일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성품에 관한 고대 도덕철학자들과 그들의 이론을 선호하는 흄의 관점은 분명 덕윤리학자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⁵⁾ 일반적으로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위시한 원칙과 규칙 중심의 윤리와 구분되는 덕윤리의 특징으로서 “행위 중심이 아닌 행위자 중심”, “행위가 아닌 존재에의 관심”, “해야 할 행위가 아닌 인간적 완성에 대한 고민”, “옳음, 의무, 책임이 아닌 좋음, 탁월함, 덕 등 아레테 개념의 중시”, “규칙이나 원칙 등 성문화된 특수한 행위지침의 제시 거부” 등을 들 수 있다.⁶⁾ 흄 역시 도덕적 평가의 근본적인 대상은 성품이라는 견해와 해석을 승인하며, 또한 이런 특징들을 지닌 유덕한 행위자가 하게 되는 행위를 좋은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명백히 ‘행위를 지배하는 성품의 우위’를 근본 신조로 삼는 덕윤리의 기

5) J. H. Sobel, *Walls and Vaults: a natural science of morals* (virtue ethics according to David Hume), 13-16쪽 참조.

6) R. Hursthouse, *On Virtue Ethics*, 25쪽.

본 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⁷⁾ 그러나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인간적 삶의 번영을 위한 실천적 지혜와 이성적 판단 능력로서의 덕과 성품 중심의 이론과 달리 흠의 덕윤리는 공평한 관망자의 입장에서 관찰자 안에 시인의 감정을 일으키는 마음이 갖는 어떤 성질로서 성품적 특질을 덕으로 정의한다(T, 471-2/571-3).⁸⁾

인간본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이론가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와 달리 흠은 인간본성에 대한 경험적 탐구자로서 인간적 삶과 행복한 삶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으며, 덕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도 제공하지는 않는데, 흠에게 유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여부는 경험적 탐구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덕윤리학자로서 흠은 놀랍게도 일반적으로 그가 덕이나 부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심지어 무엇을 “성격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단정적인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다. 덕과 부덕이 마음의 성질이며, 그리고 자비, 정의, 감사, 관대, 근면, 연민 등의 덕들과, 악한 행위, 배반, 나태함, 무자비, 잔인함 등의 부덕을 구분할 때 흠은 덕들을 특정 동기와 동일시하고 반대로 부덕은 그 동기의 부재나 무시, 혹은 반대의 동기와 동일시하기도 한다.(T, 477-8)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흠이 말하는 성품은 대체로 그것에 의해서 혹은 그것과 연관된 정념에 의해서 행위 하도록 야기되는 경향과 함께, 특정 상황에서 성품과 관계하는 정념을 경험하는 성질 혹은 성향이라 할 수 있다.

흠은 누군가의 행위를 관찰할 때에 우리는 그 행위를 우리의 심적 성질의 반영으로 생각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관련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도출한다(T, 477/575). 그러므로 덕과 부덕의 척도는 행위자의 행

7) Gary Watson, On the primacy of character, 449-483쪽 in O. Flanagan and A. O. Rorty (eds.), *Identity and Morality: Essays in Moral Psychology*, Cambridge: MIT Press, 1990; R. Hursthouse, *On Virtue Ethics*, 27쪽 참조

8) 흠의 『인성론』은 L. A. Selby-Bigge (ed), *A Treatise of Human N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이 저서는 T로 약하여, 관련 쪽수를 병기하여 본문에 직접 기입한다.

위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어떤 성질들이다. 흠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유용한 성질로 표현한다.⁹⁾ 흠의 덕과 부덕의 목록은 대체로 넓은 의미에서는 고유한 특징들을 갖지 않지만, 세부적으로는 어떤 독특한 특징들을 갖는다. 『인성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도덕적 시인을 일으키는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함께 자연적 덕과 인위적 덕의 구분이다.

흠은 도덕을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과 관계하는 의미에서 “자연적”이라거나 인간이 고안해낸 산물이라는 의미에서 “인위적”이라고 특징짓는다. 그런데 덕이나 의무가 자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개는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즉, 성품이나 행위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발명된 무엇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고유한 특성의 발현이라는 것, 그리고 덕이나 의무가 되게 하는 그러한 특성의 발현이나 행위의 좋음은 외부에서 주입시킨 사회적 관습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무언가의 귀결일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덕과 의무를 포함한 많은 사회적 규약들은 인위적인데, 대부분의 중요한 덕들은 사회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그의 관점은 매우 독특하다.

흠은 정신의 위대함에 관한 덕들, 선함이나 자비에 관한 덕들, 그리고 자연적 능력들 등을 자연적 덕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반면에 흠이 인위적인 덕으로 분류한 대표적인 것들은 정의나 공평함과 관련한 정직, 약속과 계약에 관련된 성실, 정부에 대한 충성, 법 준수, 여성과 소녀들에 있어서의 순결과 겸손 등이다. 이들은 “심적 특성(mental characteristics)”으로서¹⁰⁾ “쾌락과 시인을 산출하는 인위적 덕들”(T, 477)이다. 이 중에서 의료윤리적 관점에서 정직, 성실, 충성의 덕과 관련한 흠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직이나 성실 혹은 충성 등 이런 덕들은 어떤 이유에

9) ‘유용한 성질’, 혹은 ‘유용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다솜, 「흠의 자연주의 윤리학 - 정념과 덕의 이중수반 관계론」, 『서론』 참조.

10) J. H. Sobel, *Walls and Vaults: a natural science of morals, virtue ethics according to David Hume*, 16쪽.

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 환자의 치료와 돌봄, 의사와 간호인의 책무 등 의료윤리 행위들과 관련해서 하나의 사회적 덕으로서 요구되며, 또한 구체적인 결정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도덕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지가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회적 덕은 그것이 하나의 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감정 및 도덕적 시인의 감정으로 서 도덕감과 함께 작용되어야 한다. 이들의 공동 작용에 기초해서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유용한 성질 혹은 어떤 이익이나 만족의 감정이 산출될 때 우리는 그 행위를 도덕적인 행위로서 승인하게 된다.

흠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처럼 특정한 성격적 감정이 자연적 경향으로 내재되어 있다. 자연적 덕은 이러한 인간의 자연적 감정의 표출이다. 반면에 이러한 자연적 본성의 일부가 아닌 어떤 감정들은 일련의 목적과 사회화의 과정에 의해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야 했던 것들이다. 흠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 혹은 경향성의 표명(manifestations)으로서 자연적 덕이 특정 개인들에 대한 애착이나 헌신의 덕을 포함하며, 따라서 편파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는 관찰을 제시한다(T, 488-9). 가령 자기 자신의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경우의 덕 혹은 유덕한 행위가 그러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이와 모든 다른 아이들을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헌신하는 경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의 자연적 감정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리적으로 잘 협동할 수 있게 한다. 혹은 적어도 자연적 감정들이 자연적 덕들로 정교화 될 때 그러하다. 그러나 흠은 주장하기를, 우리의 자연적 감정들은 지나치게 편파적이어서, 우리가 친밀한 유대를 갖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기란 쉽지 않다.¹¹⁾ 혹은 적어도 중재 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반대로 흠이 인위적인 덕으로 구분하고 있는 법들이나 사회적 규약들은 어느 정도에서는 적어도 공명정대함이나 비편

11) J. L. Mackie, *Hume's Moral Theory*, 121-123쪽.

과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음으로 자연적 덕들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은 그것들이 수행될 때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인위적인 덕들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는 되레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정직하게 빚을 갚는 구체적인 행위는 해당 채무자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유익한 행위로 시인된다.

인위적 덕들에 대한 흄의 분석은 형식적으로는 자연적 덕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 기본적 구조를 가진다. 그는 우선 구체적인 유사한 사회적 덕들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인 성격의 인위적 덕들은 무엇보다도 인간적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들이다. 그리고 채무와 약속 이행에 필요한 정직의 덕은 인위적 덕으로서 “쾌락과 시인의 감정을 산출한다.” 흄에 의하면 정직은 “인류의 여건과 필요로부터 생겨나는 책략이나 고안물을 수단으로써 쾌락과 시인을 산출하는 덕들”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정직은 사회윤리적으로 좋은 성격과 성품이 갖는 특징이다(T, 477). 그러므로 이 정직의 덕은 자연적이거나 사적인 대상이나 관계에 적용되는 덕목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혹은 공공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덕목이다.¹²⁾ 그것은 개인의 관점 혹은 자기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산출되는 덕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처지나 관심을 떠나 제3자의 관점에서 즉 이상적 관망자의 관점에서 산출되는 시인과 승인의 감정이다. 이러한 이상적 관망자의 관점은 보편적 감정으로서의 공감과 도덕감정으로서의 상상력을 통해서 반성 내지는 교정된 관점이다(T, 583).¹³⁾

이처럼 흄이 말하는 공적인 덕들은 반성과 상상력, 혹은 공감과 도덕

12) J. H. Sobel, *Walls and Vaults: a natural science of morals, virtue ethics according to David Hume*, 16-20쪽.

13) Rachel Cohon, *Hume's Morality : Feeling and Fabrication*, 133-142쪽.

감에 입각해 있는 이상적 관망자의 관점에서 비판과적으로 숙고할 때에, 관찰자에게 시인이라고 하는 특정 부류의 쾌락을 주는 성품 혹은 성격이 갖는 특질이다. 반대로 부덕은 관찰자에게 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언짢음을 준다. 흠이 말하기를, 원칙적으로 시인이나 부인을 끌어내는 것은 평가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는 정념이다(T, 477-8).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념을 일으키는 어떤 마음의 특질이 바로 특정한 행위와 관련한 덕의 성격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도덕이나 의무에 대한 감각은 어떤 다른 동기 없이 행위를 산출할 수 있는가?”(T, 479). 이에 대한 흠의 결론은 의무감 자체가 도덕적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정직한 행위는 비도덕적인 동기가 아니며, 그 자체로 도덕적 시인의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이다. 의무감 같은 감정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나의 사회적 규약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2차적으로 관습화된 감정일 뿐이다. 가령, 흠은 비도덕적 동기들을 검토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처지에서 은행에서 채무 이행을 약속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채무 이행을 준수하는 정직한 행위는 그 행위를 시인함으로써 산출된 행위이다. 이 때 정직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시인은 일견 순환적 정의로 보이는데, 그것은 정직한 행위의 조건에서 정직한 행위를 정의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할 다른 방법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직한 행위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그가 정직한 행위를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흠의 눈에는 그것은 명확히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을 산출하는 정직한 행위의 동기에 의해 수행된 행위이다.

3. 행위지침과 성품의 덕

어떤 원칙이 윤리원칙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려면 그것은 행위지침으로서 규범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허스트하우스가 지적하듯이, 덕윤리학이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진정한 적수가 되려면 그것은 행위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¹⁴⁾ 또 다른 윤리이론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지니려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덕적 딜레마, 즉 한편에서의 어떤 윤리적 선택이 다른 편에서의 비윤리적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¹⁵⁾ 나는 덕윤리적으로 해석된 흄의 윤리이론이 이러한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비교 우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덕윤리적 관점에서 흄에게 정직은 하나의 인위적 덕이다. 그리고 이 덕은 성품적 특성으로서 도덕적 시인을 낳는 감정이며, 동시에 심적 특성으로서 행위자에게서 느껴지는 유용한 성질이다. 이제 이러한 덕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구해보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다.

정직이 하나의 덕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도덕적 승인 혹은 도덕적 시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일차적으로 모든 인간의 정념이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을 지배하는 자기 이익의 동기 즉 비도덕적 동기에서 유래한다고 하더라도, 흄에 의하면, 자연적 덕들의 존재처럼 모든 덕이 반성을 통해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위적인 덕들의 경우에는 묵계에 의해서 산출되는 덕들도 있다. 때문에 흄은 덕과 도덕적 동기 및 비도덕적 동기의 관계에 대해서 다소 약한 논제를 채택한다. 가령 어떤 규칙의 준수나 타인을 위한 배려가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님

14) R. Hursthouse, *On Virtue Ethics*, 26쪽.

15) R. Hursthouse, *On Virtue Ethics*, 43쪽; D. Solomon, "Internal Objections to Virtue Ethics", 170쪽.

에도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은 사실상 칭찬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meritorious person)이며, 달리 말하면 정직의 덕을 가진 사람이다(T, 475).¹⁶⁾ 그런데 어떤 덕은 시인이나 승인을 낳는 동기가 분명 있지만, 최초의 동기는 비도덕적일 수도 도덕적일 수도 있다. 정직의 덕의 경우처럼, 비록 그것이 자연적 덕이 아니라 인위적인 덕이며, 그 속성은 인간의 사회적 고안물이지만, 여기에는 모종의 “공동의 이익에 대한 감각”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흠이 비유하듯이 어떤 약속들을 직접 만들거나 받아들이지 않고도 “배의 노를 젓는 두 사람이, 비록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한 적은 없지만, 묵계에 의해 그렇게 하는 것”(T, 490)처럼 순수하게 자발적인 협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언젠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 합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차릴 때에 이러한 묵시적 협동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파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후속하는 조치가 바로 그러한 협동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다. 내가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공동의 이익과 관계하는 것과 관련한 규약이 행위의 원칙으로 강제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가 행위나 규칙 준수의 제1차적인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탕에는 묵계와 같은 도덕적인 자발적인 동기가 놓여 있다는 점에서 타율적인 강제와 구별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흠에게 인위적 덕은 타인과의 성공적인 협동을 위해 필요한 행위와 관계있다. 그것은 개인적 유용성 혹은 사적 유용성과 구분되는 비개인적인(impersonal)이며, 공적(public) 혹은 사회적(social) 유용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사적 유용성과 사회적 유용성의 구분 및 이에 기초한 덕들에 대한 흠의 분석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 때문에 정직이 과연 유용성이나 유용한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또 다른 근원을 갖는다는 견해도 있다. 정직의 덕이 지닌 속성은 이 같은 유용성이라는

16) Rachel Cohon, *Hume's Morality : Feeling and Fabrication*, 188쪽.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속성을 소유한 사람이나 제도에 대한 존경의 감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⁷⁾ 그러나 나는 이 또한 근본적으로 유용한 속성에 반응하는 인간 본성의 표현이라고 믿는다. 비록 흄 자신이 이 점을 체계적으로 해명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내면화 하게 되는 덕들은 모두 유용한 속성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은 그의 동기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해 질 수 있다.

흄은 동기를 부여하는 정념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먼저 하나는 더 이상의 분석이 불가능한 자연적 충동과 본능으로부터 나오며, 다른 하나는 현재 존재하거나 혹은 예상되는 선과 악 또는 고통과 쾌락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념이 있다.(T, 438) 본능은 “우리 적들에 대한 처벌의 욕구와 우리 친구들에 대한 행복, 배고픔, 욕망, 그리고 어떤 다른 신체적 욕구들,”(T, 439) 그리고 아마도 “삶에 대한 애정, 친구들에 대한 친절함”(T, 417)을 또한 포함한다. 이런 정념들은 본능적인 것이다. 반면에 직접적인 혹은 예상되는 선과 악으로부터의 정념은 욕구, 혐오, 바람, 두려움, 기쁨, 슬픔의 직접 정념들과, 자부심, 소심, 사랑, 미움, 또는 이것들이 섞이고 모방하는 다른 많은 간접정념들을 포함한다. 자부심과 소심은 우리를 행위로 직접 옮겨가도록 하지 않지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욕구나 혐오를 강화시키게 하며, 그리하여 이러한 직접정념들에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증대시킨다(T, 439). 자부심과 소심이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흄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에 부합하는 행위를 자랑스러워하고, 위반하는 행위를 부끄럽게 여겨서(T, 288/303), 그것들을 준수하도록 행위하는 욕구를, 그리고 위반하도록 행위하는 혐오를 강화시킨다. 또한 관습은 대상을 향한 “경향과 성향”을 전해주며(T, 422), “정신을 습관적 행위로 더욱 강력하게 연결한

17) Christine Swanton, “What Kind of Virtue Theorist is Hume?”, 242쪽.

다.”(T, 424). 이렇게 “성품과 행위에서 생기는 모든 쾌락 또는 고통의 감정은 우리에게 칭찬이나 비난을 일으키는 독특한 종류의 것들이다. 그리고 이 도덕적 감정은 보편적 특성을 갖는 것이다.”(T, 472). 이와 함께 “공공의 이익에 대한 공감은 정의의 덕에 수반되는 도덕적 승인의 원천이다.”(T, 500) 나는 이 공공의 이익을 공적으로 유용한 속성 내지는 성질에 반응하는 인간 본성의 작용 혹은 표현이라고 이해한다.

정직을 덕으로 만드는 동기는 도덕적 동기이며, 이에 부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인의 감정을, 위반에 대해서는 부인의 감정을 낳는다. 그리고 그 동기는 동시에 자부심과 수치심과의 연합과 습관에 의해 강화되고 강조된다. 그것은 탐욕이나 자기이익의 형식 혹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며, 자신의 고유한 이익이나 혹은 사회의 선을 위한 규칙을 위반하려는 유혹에 직면하여 반대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동기는 그러한 경우들에서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직한 행위가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도 정직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실상 칭찬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며, 말 그대로 정직의 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직의 덕과 같이 어떤 행위를 낳는 덕스러운 행위에는 단순한 이익-손해에 대한 정량적 판단이 아니라 옳은 행위를 옳게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윤리적 자연주의자로서의 흠은 그와 같은 요인을 일반적으로 인간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공적 유용성 내지는 사회적 유용성에의 반응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직에 대한 흠의 이 같은 사고는 표면적으로 정직이 하나의 행위 기준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흠에게 정직은 무조건적인 절대적 기준이나 지침이 아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객관적이며 무조건적인 행위 척도처럼 보이는 이유는 정직이라는 덕목 자체가 ‘항상 정직하게 행위하라’ 혹은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한다’와 같은 규정과 형식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혹은 언제나 정직해야 하는 것은 정직이 반영하는 행위 속성 때문인데, 그 속성의 도덕성이 정직의 실제적인 척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정직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대상의 속성에 대한 이해이다. 정직을 행위지침으로 삼는 도덕적 동기의 특성과 속성은 유용성이다. 유용한 특질 내지는 성질이 정직의 도덕성을 요구하며, 또 도덕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 때문에 흄의 입장에서는 정직은 정직을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행위의 척도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이는 곧 어떤 상황에서는 정직의 덕이 아니라 다른 덕목이 요구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흄에게 정직은 모든 경우에 언제나 준수되어야 하는 행위의 객관적 척도가 아니다. 오히려 흄은 하나의 덕목이 어떤 경우나나 확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4. 환자의 치료와 정직의 덕

앞서 제기된 암 환자의 사례에서 의사는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 혹은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자신의 병세와 관련한 환자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해서 많은 의료윤리적 문제들의 해결에 적합한 이론으로서 칸트적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등 다양한 윤리적 견해를 중에서 흄의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 이유는 덕윤리적으로 해석된 흄의 윤리이론은 어떤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도덕적 견해들이 봉착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료윤리의 네 원칙들 중 자율성의 원칙은 의사는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고, 동시에 그에 입각한 환자의 자율적 결정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에 의거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윤리원칙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한

다.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는 자의적으로 치료를 결정할 수도 실행할 수도 없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밖에도 이 원칙은 많은 윤리적 준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령, 의사는 환자에게 혹은 그의 가족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환자의 의사결정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환자나 피실험자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환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등등. 칸트적 의무론의 관점이든 밀의 공리주의적 관점이든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적 관점이든 모두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자율성의 원칙을 거부하지 않는다. 심지어 계약론적 윤리이론도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자율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칸트와 밀 공히 자신들의 윤리적 관점에 입각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이는 어떤 다른 가치들에 도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그들 모두 인간적 자유의 확보가 자율적 행위와 도덕적 선택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노력했다.¹⁸⁾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올바른 윤리적 선택의 원천으로서 실천적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동시에 그에 합당한 품성의 덕을 필요로 한다. 이론과 실천의 동일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품성의 덕은 스스로 올바른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행위의 책임을 행위의 동기와 결부지어 고려할 것을 강조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¹⁹⁾ 이러한 능력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경우에도 요구될 것이며,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이러한 능력을 존중하고 그의 선택과 결정 또한 존중해야 한다. 또한 의사는 환자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18) 맹주만·김은미, 「밀의 공리주의와 덕윤리학」, 95-101쪽.

19)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Bk. III, Ch. V. 아리스토텔레스의 자발적 행위(voluntary acts)와 비자발적 행위(involuntary acts)의 구분 참조.

해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론적 차원을 넘어서 실제 상황에 적용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자율성의 원칙은 실천적 딜레마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적 직관에도 잘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모든 면에 완벽하거나 유능한 행위자로 간주하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 이러한 사정은 더욱 그렇다. 실제 상황에서 자율성의 원칙과 가장 분명하게 대립하는 것이 의료윤리의 네 원칙들 중에서 선행의 원칙이다. 자율성의 원칙은 그 정신에 있어서 환자에게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혹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준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선행의 원칙은 환자의 치료에 불가피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앞의 사례의 암 환자의 경우 전문가의 입장에서 환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진실을 말하는 게 환자의 병세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은 담당 의사로 하여금 자율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보다는 선행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개인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와 보호라는 의학적 치료의 목적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칸트적 의무론이나 규칙 공리주의 등 규칙 중심의 윤리에 따르면, 진실을 말해야 하는 행위는 언제나 그에 따라야 하는 행위의 일반적 규칙이다. 그러한 규칙은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이자 명시적인 행위지침으로서 간주되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이러한 장점은 저 사례의 경우에는 선행의 원칙에 대한 고려를 아예 차단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약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무엇보다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유지라는 가장 중요한 의료적 목적이 무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용을 행위의 척도로 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도 “마땅히 그래야 할 때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게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²⁰⁾ 이루어져 하는 도덕적 행위는 자율성의 원칙과 양립 가능한 실천

적 지혜에 근거하며, 또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그에 가장 적합한 행위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측면에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용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개인의 행위와 선택의 척도가 공동체적 삶이라는 더 큰 구체적 상황에 제약되어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직의 덕은 이미 주어져 있는 공동체의 윤리에 부합하도록 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 환자의 이익은 무시되거나 혹은 다른 이유들에 의존적일 공산이 크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행복한 삶으로서의 좋은 삶이라는 실천적 목적은 “언제나 감정 자체와의 관계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따라서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한 삶과 대립할 여지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 역시 선행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²¹⁾ 그러므로 결국 어느 경우든 아리스토텔레스의 해결책은 자율성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 모두에 위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흠의 정직의 덕은 그것이 특정한 상황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덕목이 아니다. 정직이 요구되는 대상과 상황에서 필요한 덕목이며, 어떤 사건이 정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덕스러운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 행위가 된다. 말하자면 각각의 경우에는 그에 맞는 적합한 행위가 있으며, 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행위 원칙은 동일하게 유용성의 원리에 따른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익이 무엇인지가 그에 적합한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흠의 윤리이론의 비할 데 없는 장점이 여기에 있다. 자율성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두 윤리원칙을 모두 그리고 동시에 준수할 수 있기

20)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1106b21-22.

21) 맹주만, 「칸트의 도덕적 행복과 아리스토텔레스」, 189쪽.

때문이다. 가령 온정적 간섭주의, 특히 의학적 간섭주의와 관련해서 자율성 원칙과 선행 원칙의 상호 충돌 혹은 자율성과 간섭주의의 상충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려 시도²²⁾ 역시 마치 성인과 어린이나 미성년자가 구분되며, 그에 따라 허용 가능한 간섭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듯이 질병에 따라 환자의 자율성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서 그에 비례하는 제한된 간섭주의를 옹호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선행 원칙과 자율성 존중 원칙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독립적인 윤리원칙이기에 어느 하나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것은 철학적 논증의 물음이 아니라 세계관의 선택 물음”²³⁾으로 파악한다. 만일 이 두 원칙이 상호 독립적인 원칙들이며, 또한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이 세계관을 선택하는 문제에 해당된다면, 나는 제한된 간섭주의 혹은 자율성의 탄력적 사용 모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도에 따라 변용되고 소통될 수 있는 서로 다른 세계관은 타협의 대상이지 윤리적 선택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병과 의료적 치료라는 행위 목적을 중심에 두게 된다면, 흠의 관점은 이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환자의 자율적인 동의와 승인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선행의 원칙에 따라서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기 보다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가 생길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 이 두 가지 중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어떤 행위를 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명과 건강 증진이다. 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윤리원칙은 선행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유용성 혹은 환자의 이익이 의료적 행위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율성의 원칙에 대한 고려는 그 다음 순위가 되어야 한다.

22) 김상득, 「의료행위에 있어서 온정적 간섭주의의 정당화 물음」, 448-469쪽.

23) 같은 글, 458쪽.

의료적 치료를 위해서는 자율성의 원칙이 아니라 선행의 원칙이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도덕적 시인을 낳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선택은 정직의 덕과 결합하여 그에 적합한 행위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자율성의 원칙을 전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환자의 이익을 위한 수술이나 치료가 비록 생명 유지에는 얼마간 도움이 되더라도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 진실을 알았을 경우에 환자가 느끼게 될 배신감과 좌절감도 적절한 수준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는 선행의 원칙 보다는 자율성의 원칙이 우선할 것이며,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고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환자의 동의 여부가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환자의 입장과 의료적 치료의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장 최선이 되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 우선순위의 중심에는 환자의 생명과 질병, 그리고 건강에 대한 고려가 놓여 있다.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흠의 윤리이론은 의료윤리의 원칙들 간의 충돌이나 모순을 피해갈 수 있다.

5. 맺음말

덕윤리적으로 해석된 흠의 윤리이론을 의료윤리적 문제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단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결론적 평가에서도 여전히 반박될 수 있는 문제들도 남아 있다. 가령 정직의 덕이 적용되거나 발휘되어야 할 때와 아닐 때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또 선의에서 하는 의사의 환자를 위한 거짓말이 정말로 선의의 원칙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또한 자율성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때,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유능한 심판자로서 의사의

역량에 의존해야 하는가? 아니면 객관적 지표로서 계량화할 수 있는가? 과연 체계화가 가능한 덕들의 목록을 제시할 수 있는가? 더불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치료를 강행하려는 경우가 값비싼 수술 기구의 사용을 위해서라든가, 의사가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든가, 환자의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요구에 직면할 수 있는 환자나 가족의 입장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가능한 문제들 모두에 대해서 흠의 윤리적 견해는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의료윤리는 넓게는 윤리학, 좁게는 응용윤리학 혹은 실천윤리학의 한 부문이다. 실천적 학문으로서 응용윤리학은 윤리적 문제들 중에서도 다양한 실제적인 현안들에 대한 탐구에 종사한다. 마찬가지로 의료윤리학 또 의학 및 의료적 치료와 관련한 윤리적 현안들에 대한 탐구에 종사한다. 이처럼 응용윤리학이 인간적 삶에서 야기되는 구체적인 현안들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전통적인 윤리학 특히 규범윤리학은 윤리적 원칙들 일반에 대한 탐구와 증명에 집중한다. 그런데 응용윤리적 내지는 실천윤리적 문제들의 해결에는 필연적으로 적용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해도 어떤 경우든 보편적인 윤리원칙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비록 적용 범위에 있어서 그 원칙의 적용이 극도로 제한적일 수는 있어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대부분의 실천윤리적 문제들은 대체로 칸트의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학, 계약론, 상황윤리 등 직간접적으로 전통적인 규범윤리학의 성과에 의존적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주류 이론들에 의존할 수 없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로 유전공학적으로 복제된 인간, 복제된 생명,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의 지위 등과 같은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 경우 인간 혹은 생명 개념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인간복제나 인공지능 기계들이 의료윤리적 문제들에 포함될 경우 이는 기존의 윤리이론만으로는 그에 합당한 답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들 문

제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범윤리적 이론들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흠의 윤리이론은 그것이 애초부터 의료윤리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고안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실천적 문제들에 규범적 원칙들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덕윤리적으로 해석된 흠의 윤리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본 논문이 보여주려 했듯이 다른 규범 윤리적 견해들에 비해서 흠의 윤리이론은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대체로 규칙 중심의 윤리는 원칙들 간의 충돌이나 그에 따른 해결하기 어렵거나 예외적인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흠의 덕윤리는 보편적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사안마다 구체적인 해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월하다. 이는 방법론적으로 흠의 윤리적 견해가 자연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자연주의 윤리 자체가 하나의 개별적인 사실들 각각에 대한 경험과 관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발생한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 역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감감정의 원리로부터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일반적 동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성과 보편성의 조화와 통일을 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상득, 「의료행위에 있어서 온정적 간섭주의의 정당화 물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9권 제4호(통권 제49호), 한국의료윤리학회, 2016.
- 김다솜, 「흠의 자연주의 윤리학 - 정념과 덕의 이중수반 관계론」, 중앙대학교, 2018.
- 김일순·손명세·김상득, 『의료윤리의 네 원칙』, 계축문화사, 1999.
- 데이비드 흠, 『도덕에 관하여』, 이준호 옮김, 서광사, 1998.
- _____, 『정념에 관하여』, 이준호 옮김, 서광사, 1996.
- 맹주만, 「칸트의 도덕적 행복과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연구』 제32집, 한국칸트학회, 2013.
- 맹주만·김은미, 「밀의 공리주의와 덕윤리학」, 『철학탐구』 제30집, 중앙철학연구소, 2011.
-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translated and edited by Roger Crisp, Cambridge University 2000.
- Arras, John and Hunt, Robert (eds.), *Ethical Issues in Modern Medicine*, California: Mayfield, 1983.
- Beauchamp, Tom L. and Childress, James F.,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Cohon, Rachel, *Hume's Morality: Feeling and Fabr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Crigger, Bette-Jane (ed.), *Cases in Bioethics*, Selections from the Hastings Center Report, 3rd. ed., Boston/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 Hume, David, *A Treatise of Human Nature*, L. A. Selby-Bigge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Hursthouse, R., *On Virtue Ethics*, Oxford: Clarendon Press, 1999.

- Mackie, J. L. *Hume's Moral Theory*, London: Routledge, 1980.
- Mccullough, Laurence B., "Hume's influence on John Gregory and the history of medical ethics",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24(4), 1999.
- _____, (ed.), *John Gregory's Writings on Medical Ethics and Philosophy of Medicine*, Dordrecht/Boston/Londe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8.
- Pigden, Charles R. (ed.), *Hume on Motivation and Virtue*, Palgrave Macmillan, 2009.
- Sobel, J. H., *Walls and Vaults: a natural science of morals, virtue ethics* (virtue ethics according to David Hume),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2009.
- Solomon, D, "Internal Objections to Virtue Ethics", in D. Statman (ed.), *Virtue Ethics: A Critical Reader*,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7.
- Swanton, Christine, "What Kind of Virtue Theorist is Hume?", in Charles R. Pigden (ed.), *Hume on Motivation and Virtue*, Macmillan, 2009.
- Watson, Gary, On the primacy of character, in O. Flanagan and A. O. Rorty (eds.), *Identity and Morality: Essays in Moral Psychology*, Cambridge, MA: MIT Press, 1990.

Hume's medical ethics and the virtue of honesty

Kim, Dasom (Chung-Ang Univ.)

In this paper I try to interpret Hume's ethical theory from viewpoint of virtue ethics to apply to medical ethical issues. Hume's medical ethical point of view can provide action-guiding to doctor, nurse, even a patient in a special medical situation. Hume's virtue of honesty interpreted from viewpoint of virtue ethics eliminates unilateral application of duty-based principle. In Hume's case the morality of action takes into account the interest of the beneficiary which depends on feelings of the actor's approval. not unconditional fulfillment of duty. Therefore to Hume the virtue of honesty is actor's character-traits, and it is not an unchanging principle of conduct, but a characteristic that can b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atient's condition.

Key words: virtue ethics, principle of sympathy, virtue of honesty, medical ethics, medical philosophy, principle of autonomy, principle of beneficence, care

김다솜 E-mail: kds-111@daum.net

투 고 일	2019년 01월 22일
심 사 일	2019년 02월 12일
게재확정	2019년 02월 23일